

2025년 뉴스웨이 독자권익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11일(목)
- 장소: 뉴스웨이 편집국장실
- 참석자: 정상국 위원장, 권오용 위원, 김여일 위원, 윤경호 위원 (총 4명)

○ 안건

- 뉴스웨이 생성형 AI 기반 기사 요약 서비스('AI 한입뉴스') 도입 사례 평가 및 방향성 논의

○ 회의 자료

- 제목: 독자 편의를 위한 생성형 AI 기반 기사 요약 사례
- 예시 기사: 2025년 11월 26일 자 출고 기사 <'AI 만능' 시대 끝났다...위기의 AI 스타트업>
- 자료 내용: 복잡한 산업 이슈(AI 스타트업의 R&D 비용 부담 및 상장 유지 우려 등)를 다룬 기사 본문을, 'AI 한입뉴스'가 어떻게 핵심만 축약하여 기사 내에 배치하고 있는지 그 결과물을 공유
- * AI한입뉴스란? OpenAI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함으로써, 독자가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뉴스웨이만의 서비스

○ 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 **(권오용 위원)** AI 기술이 경제·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관련 정보는 단순한 IT 트렌드를 넘어 국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must) 필수 지식으로 자리 잡았음.
독자 개개인의 AI 기술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 입장을 떠나서, 뉴스웨이가 선도적으로 기사 요약에 AI를 도입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 전반에 'AI 마인드'를 안착시키고 저변을 확산하는 데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높이 평가함.
- **(윤경호 위원)** 서비스의 혁신성과 독자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언론 본연의 신뢰성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 AI 모델이 긴 기사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문맥을 오독하거나 사실관계를 미세하게 왜곡하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환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함.

따라서 단순 요약문이라 할지라도 기사 내용에 혹시라도 포함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철저하게 체크하고 최종 단계에서 완벽히 걸러낼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과 데스크킹 장치를 강구하는 작업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함.

- (정상국 위원장) 윤 위원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함. 언론사의 업무 효율성과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AI 기술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성은 시대적 흐름임. 그러나 생성된 결과물을 기계적으로 곧바로 내보내는 것은 위험함.

최종적으로 독자에게 기사를 '서비스'하기 직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숙련된 데스크나 기자의 정교하고 최적화된 사실 확인 및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며, 기술의 편리함이 인간의 최종 책임을 대체해서는 안 될 것임.

- (김여일 위원) 앞선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퀄리티가 확보된다면, 현재 텍스트 요약 위주로 제공되는 'AI 한입뉴스'의 독자 접근성과 활용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단순히 기사 중간에 요약본을 띄워주는 1차원적인 기능을 넘어, 모바일 환경의 독자들이 뉴스웨이의 콘텐츠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소비하고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각적인 아이디어와 후속 기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전체 요약

- 뉴스웨이의 선도적인 AI 기사 요약 서비스 운영은 독자 편의 제고는 물론 우리 사회의 'AI 마인드'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 AI 요약본의 오류 방지를 위해, 독자에게 제공하기 전 데스크와 기자의 철저한 사전 팩트체크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
- 이러한 철저한 팩트체크 시스템을 전제로, 향후 모바일 환경 등에서 독자의 접근성과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현행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다각적인 후속 기획 모색이 중요

(배석 및 기록: 이윤구 기자)

첨부: 종합 제언

종합 제언

뉴스웨이의 AI 기반 기사 요약 서비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I를 취미한 것이지, 최종적 판단은
정교하게 한 후에 '서비스'해야 할 것임.

뉴스웨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김성욱 (서명)

뉴스웨이의 AI 기반 기사 요약 서비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I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독자 나아가 국민들이 알아야 할 (Must)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AI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AI 미반영
의 확산에 그 기여를 하거나 평가합니다.

뉴스웨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김성욱 (서명)

뉴스웨이의 AI 기반 기사 요약 서비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I제외목록"의 권역으로 추가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웨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김영민 (서명)

뉴스웨이의 AI 기반 기사 요약 서비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혹시 포함될수 있는 오류를
체크하고 정러닝 공치를 함께
강구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뉴스웨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유영호 (서명)